

성별	남	나이	71세	직종	석재가공	직업관련성	있음
----	---	----	-----	----	------	-------	----

## 1. 개요

임○○은 55세부터 석재가공업체에 원석절단 보조업무 및 청소업무를 6년간 해 오다가 퇴직이후 약 3~4년이 지나면서부터 기침, 가래 증상 등의 호흡기 증상이 점차 악화되어 2009년 1월 “진행성 폐 섬유증”으로 진단받았다.

## 2. 작업환경

임○○은 1992년(55세)부터 석재 가공업 보조 및 청소 업무를 6년간 시행한 것 외에는 농사를 주로 하였다. 석재가공업체내의 작업환경측정결과 산화철, 석면, 섬유상 분진은 확인되지 않았다. 결정형 유리규산은 크리스토팔라이트가 검출되었으며 노출수준은  $0.015 \sim 0.017 \text{ mg/m}^3$ 으로 나타났는데 측정 당시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온 점을 고려할 때, 맑은 날씨에서는 기준( $0.05 \text{ mg/m}^3$ )을 초과하여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.

## 3. 의학적 소견

입사 전에는 당뇨 및 고혈압 등 특별한 질병은 없었다. 흡연력은 55갑년(2008년도에 금연), 음주는 반주로 막걸리 1-2잔 정도였다. 2009년 대학 병원에서 폐활량 검사 및 HRCT 촬영결과 간질성폐렴 형태인 특발성폐섬유화증으로 진단받은 후 증상이 악화되어 2009년 10월 16일 사망하였다.

## 4. 고찰

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은 오래 전부터 잘 알려진 간질성 폐질환인 규폐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규폐증자의 17.3-19.3%에서는 폐 섬유화도 나타날 수 있다.

## 5. 결론

임○○(망, 71세)의 특발성 폐섬유화증은

- 6년 동안 석재가공업무를 수행하던 중 옥외작업으로 유리규산 노출수준이 얼마나 높았는지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유리규산에 노출된 이후에 특발성 폐섬유화증으로 진단되었으며
- 특발성 폐섬유화증은 진행성 질환이므로 노출 이후 중단 후에도 계속 진행, 악화될 수 있고,
- 40~50갑년의 흡연경력 또한 상당한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흡연에 의한 영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는 근거 또한 없음으로 업무관련성이 있다는 결론이 지배적이었다.